

남동구, 전통시장 6곳 시설 현대화 추진...사업비 22억 원 확보

남동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남동구는 인천시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서 6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22억 원 규모로, 인천시 전체 사업 규모의 40%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약 13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수시장 비가림막(아케이드) 신설(9.3억 원) ▲인천 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전면 교체(7.6억 원) ▲장승백이 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설(3.2억 원) 등으로, 내년 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만수시장은 1984년 개장한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그간 지역 상권의 중심이자 소통 공간의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시설 노후화와 경기침체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해왔다.

남동구는 이번 비가림막(아케이드) 신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향후 만수시장이 남동구 대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올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개폐식 지붕 설치공사 등 9개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쳤으며, 9월에는 구월도 매전통시장 고객센터가 새로 문을 연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내년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과 더불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M버스 노선 신설 촉구

박용철 강화군수가 지난 8일, 인천시 중구 서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9월 인천 지역 군·구청장협의회에서 강화~서울역을 바로 잇는 급행 M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과 연계하는 광역버스 21개 노선과 M버스 1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서울~신촌행 3000번 광역버스 1개 노선만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노선은 김포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강화에서 서울 신촌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광역 교통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화군이 건의한 강화~서울역 M버스 노선은 서울역까지 1시간대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다. M버스가 도입되면 서울역 직결을 통한 KTX 연계로 지역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박용철 강화군수는 "같은 인천 시민임에도 지역 간 교통 여건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강화군민도 인천 시민으로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심의위원회 심의 시 강화 지역 노선이 반영 및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시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 비전 선포’

2029년까지 2조7천 억 펀드 조성·해외 기업 협력

강화...4년 내 유니콘 2개 이상 창출 목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9일 인천스타트업파크 키넥트홀에서 '인천시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혁신이 모이는 인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인천대학교총장, 재능대학교총장, 13개 대학 창업추진단장,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털, 글로벌 대기업 관계자 및 스타트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꿈은 단순히 한 도시의 발전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최근 APEC 무대에서 언급한 인구소멸 위기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아이플리스

드림시리즈 정책을 통해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11.6%)를 기록했으며, 지역총생산 117조 원으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라며, "인구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라고 강조했다.

첫째, 대규모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9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하고 인천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해 초기기업과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한다. 13개 대학과 연계한 '청년 유니콘 연결 펀드'를 통해 청년 창업이 곧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며, 민간 CVC 펀딩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 플랫폼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단기간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FAST TRACK'을 구축하고,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 한진, 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과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특화산업 앵커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동시에, 독일 에보닉, 말레이시아 쉘웨이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창업도시를 만든다. 2027년 준공 예정인 K·바이오랩 허브(총사업비 2,500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산업육성센터,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벤처 이니셔티브', 대학의 AI·IT 창업대학원 등과 연계해 창업 기업이 연구 단계에서부터 실증과 상용화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송도 연구개발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교육·인재양성·실증이 융합된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인천 전역을 실증 자유구역으로 확대해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이 신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AWS코리아, 지멘스 인터스트리 소프트웨어 코리아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각 사는 인천시와 함께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글로벌 신생기업 성장 발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유망 신생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심하린 기자

“행정 체제 개편, 일류도시 인천 초석으로!”



김정현 인천 중구청장이 인천 지역 군·구청장들에게 "성공적인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한 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총력을 다하자"라고 제안했다.

김정현 구청장은 지난 8일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9월 중 인천 지역 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각 군·구의 현안을 공유하고 인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정현 중구청장을 비롯해 인천 지역 군·구청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발전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삼야시간대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 △강화~서울 광역버스(M버스) 신설 △용진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학익 유수지 준설공사 시비 지원 △노후 공동주택 우선 매입 임대 사업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중 중구는 '삼야시간대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 안건을 건의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정책적 근거 마련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하린 기자

특히 김정현 구청장은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 지역 모든 군·구가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현 구청장은 "인천은 2026년 7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라는 중대한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라며 "시·군·구가 지혜를 모아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협의회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검토·조치 결과 등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민선 8기 인천 지역 군·구청장협의회는 매일 인천 각 군·구를 순회하며 시·군·구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그동안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 사항을 적극 개진하며, 당면 현안 해결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왔다.그간 구는 영종국제도시 인천 제3의료원 설립,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하며 인천시와 인천 지역 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영흥도 X-RAY작전 특수임무전사자 14위 추모식

제75주년 1950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영흥도 해군전적비에서 지난 9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적 초석이 된 '영흥도 X-RAY작전' 특수임무전사자 14위를 기리는 추모식이 엄숙히 거행됐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지부장 유계열)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로, 문경복 용진군수를 비롯해 영흥 청년의용대원 유가족, 인천시보훈정책과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영흥도는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영흥도 X-RAY작전'은 북한군 해안포대의 위치와 규모, 병력 등 핵심 정보를 맥아더 사령부에 전달하고 기뢰 제거 등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며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기여한 비밀 첩보작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훗날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날 추모식은 영흥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문경복 용진군수는 "모든 유가족분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고 신나는 용진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기반형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 컨설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지역 기반형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된 33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9월 8일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컨설팅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유

치원 교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해 기관별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보 이음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유치원 교사는 "유·보 이음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 역시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치원·어린이집·교육청·육아종합지원센터 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보 이음교육의 현장 안착과 지역 기반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연계 ▲교직원 학습공동체 운영 ▲거점기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보 이음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하린 기자

달짝~!
뒷좌석까지 안전을 채우세요

뒷좌석 안전벨트도 CHECK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 무려 3.7배**

국토교통부 **ex** 한국도로공사